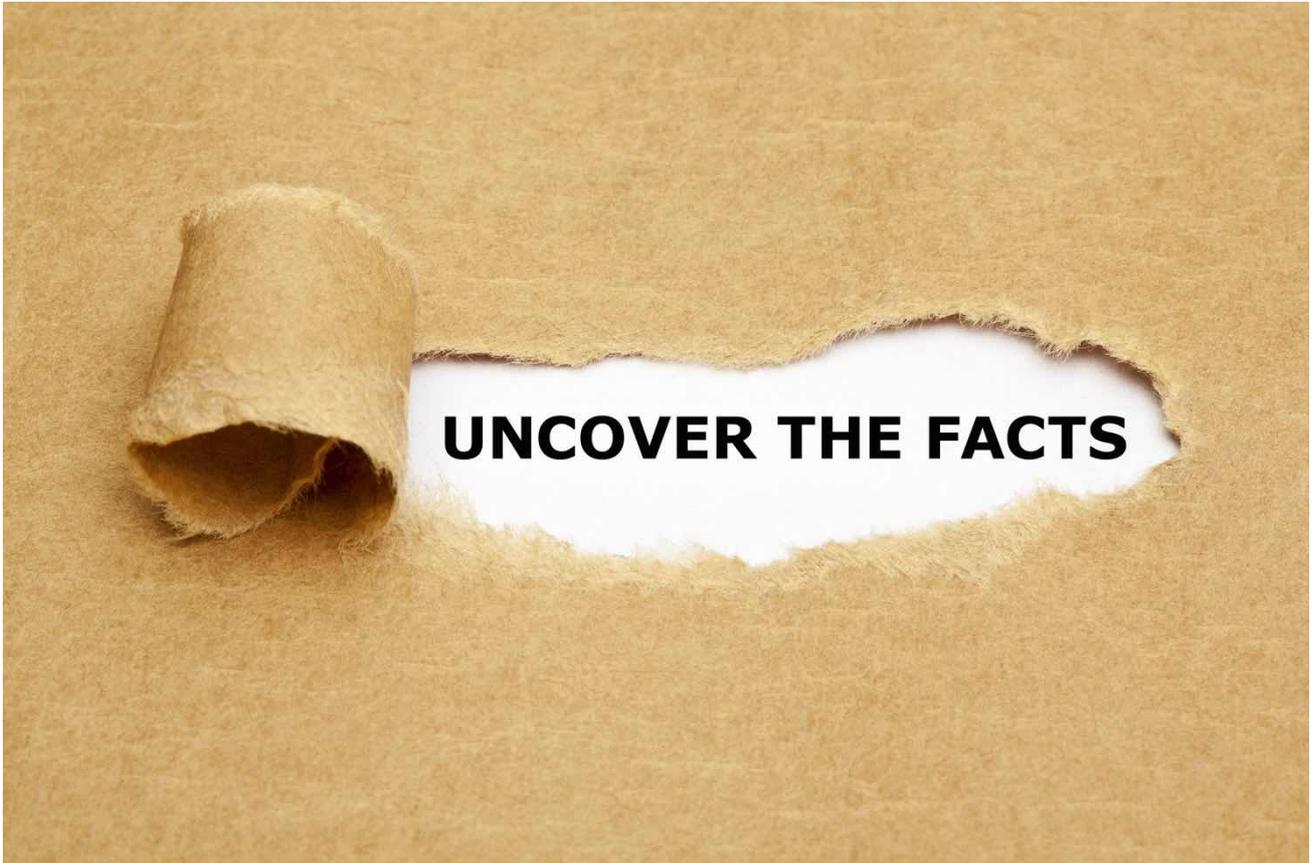


numbers 제 92호



주요 내용

2021. 04.23

1. 이번 주 주제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 인식 비교(개신교인, 목회자, 비개신교인, 기자)]
 - 한국 교회, 코로나19 관련 '이기적이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기후 변화 현상]
 -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지난 30년 간 0.9도 올라!
 -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 한국 합계출산율 1.1명으로 2년 연속 세계 198개국 중 꼴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한국 교회, 코로나19 관련 ‘이기적이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1년간 기독교 통계를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실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대다수의 교회는 외면당한 채, 방역지침을 어기고 강성적 모습을 보이는 일부 교회만 언론의 공격 대상이 되어 자극적으로 노출되고, 이런 영향으로 국민들이 교회발 확산자 수 비율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는 등 한국 교회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국사회의 책임적인 사회적 주체로서 갈등 지수가 높은 이 나라에서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과제가 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코로나19와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진행하여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목회자,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언론, 시민단체 등 한국 교회를 둘러싼 주요 집단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 차이의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찾는 작업이었다. 이 일을 처음부터 함께 한 자로서 한가지 발견한 사실은 일반인들의 코로나19 관련 교회에 대한 인식은 언론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관련 국민과 언론의 ‘이기적이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92호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책임적 교회가 되는 데 돕는 자료로, 또 일반인들에게 교회의 속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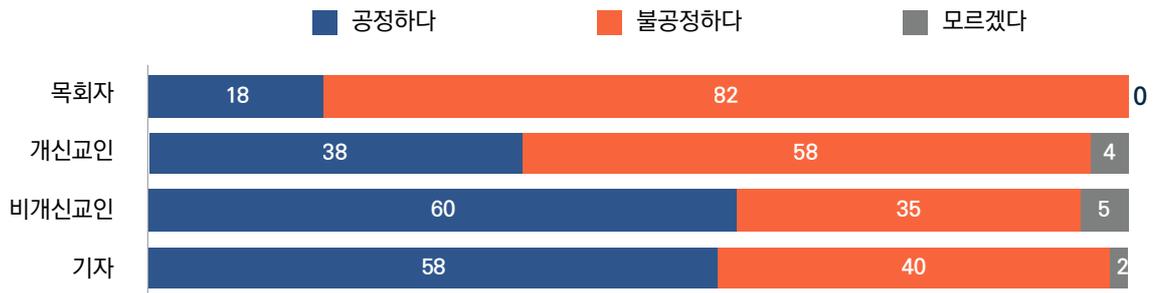
1



코로나19 관련 언론의 개신교 보도의 공정성 평가, 비개신교인/기자는 긍정, 목회자/개신교인은 부정 의견으로 갈려

- 코로나19 관련 언론의 개신교 보도의 공정성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그룹별로 응답이 나뉘는데, 비개신교인과 기자가 거의 비슷하게 ‘공정하다’는 응답이 각각 60%, 58%로 높은 반면, 목회자와 개신교인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82%, 58%로 그룹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관련 언론의 개신교 보도의 공정성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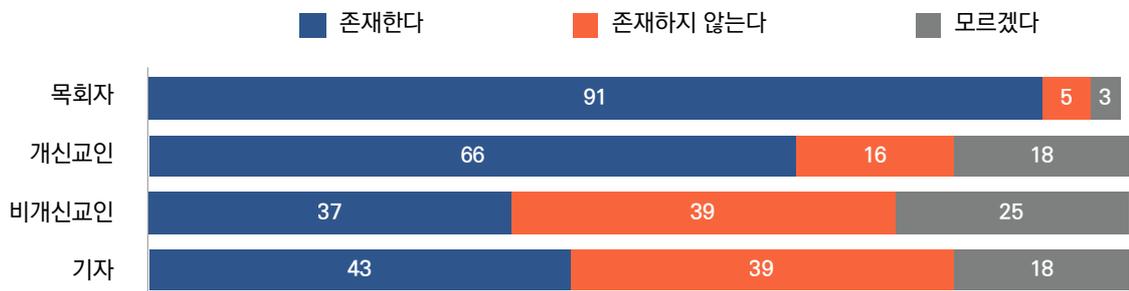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장로회신학대학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2021.04.14.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기자 102명 등 총 1,402명, 온라인/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1.06.~17)

** (매우+약간) 공정하다, (별로+전혀) 공정하지 않다 수치임

● 교회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프레임 여부, 목회자, 개신교인 뿐 아니라 기자들도 '존재한다'는 인식 높아

- 교회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프레임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목회자는 무려 91%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신교에 부정적인 비개신교인과 기자들도 3명 중 1명 이상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언론의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프레임 존재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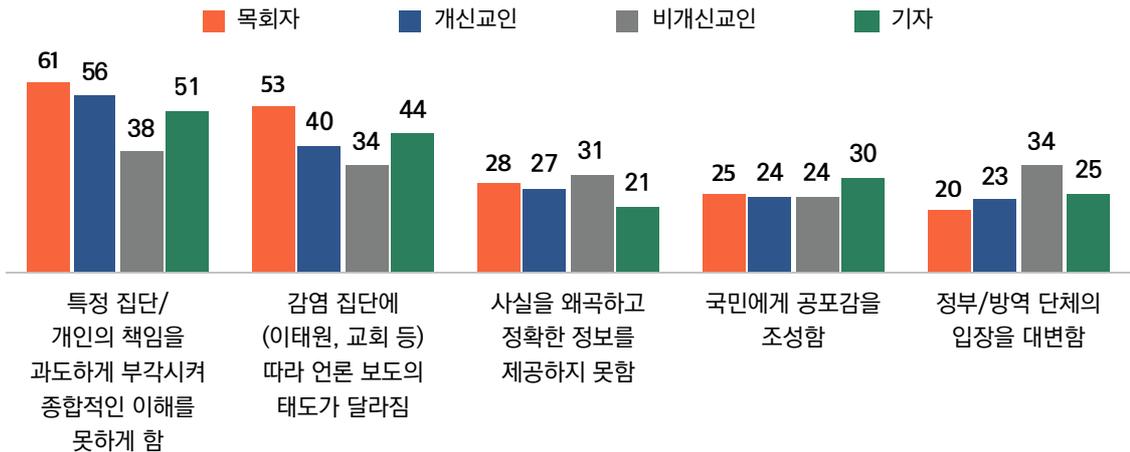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장로회신학대학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2021.04.14.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기자 102명 등 총 1,402명, 온라인/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1.06.~17)

●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 문제점, 특정 집단/개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종합적인 이해를 못하게 했다!

-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전체적으로 '특정 집단/개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종합적인 이해를 못하게 했다'는 점이나 '감염집단에 따라 언론의 보도 태도가 달라진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특히 기사 작성자인 기자들도 이 두 문제를 가장 높게 응답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상위 5위) (%)



*자료 출처 : 장로회신학대학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2021.04.14.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기자 102명 등 총 1,402명, 온라인/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1.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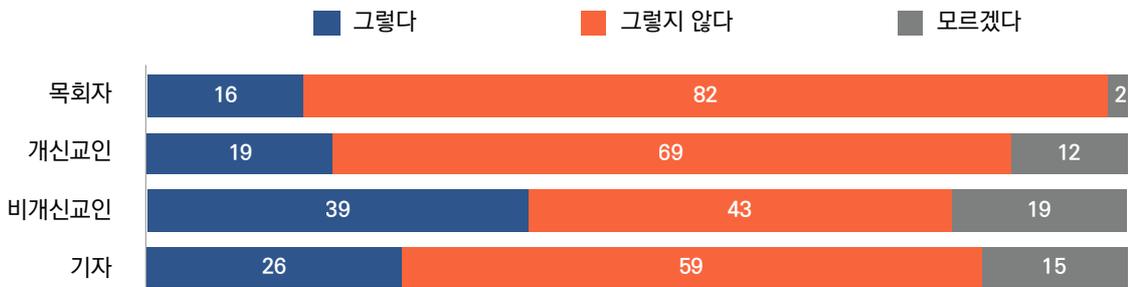
2



4개 집단 모두, 현 정부가 개신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고 인식!

- 현 정부가 개신교 교회에 대해 우호적인지 질문한 결과, 4개 그룹 모두 '우호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우호적이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 특히 비개신교인, 기자의 경우 '정부가 개신교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43%, 59%나 돼 주목된다.

[그림] '현 정부는 개신교 교회에 대해 우호적이다' 의견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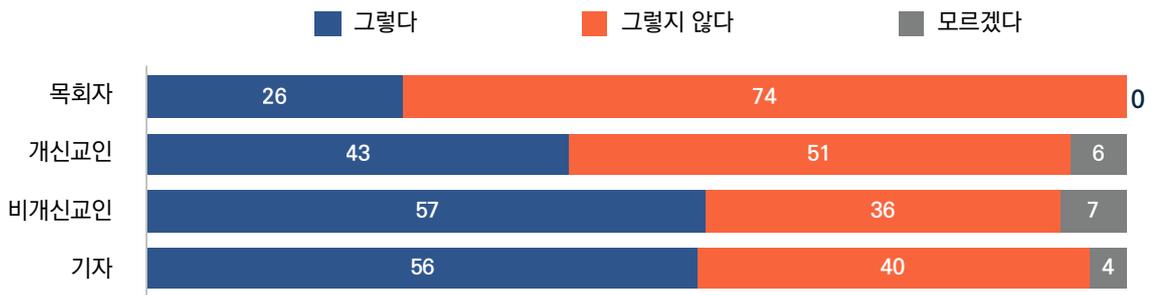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장로회신학대학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2021.04.14.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기자 102명 등 총 1,402명, 온라인/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1.06.~17)

** (매우+약간) 그렇다,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 수치임

● 코로나19 관련 방역 당국의 개신교 조치에 대한 공정성, 목회자 4명 중 3명 ‘공정하지 않다!’

- 코로나19 관련 방역 당국의 개신교에 대한 조치의 공정성을 묻은 결과, 앞에서 언론의 공정성과 동일하게 비개신교인/기자는 긍정, 목회자/개신교인은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 목회자의 경우 4명 중 3명 가량(74%)은 방역 당국이 교회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코로나19 관련 정부/방역당국의 개신교 교회 조치에 대한 공정성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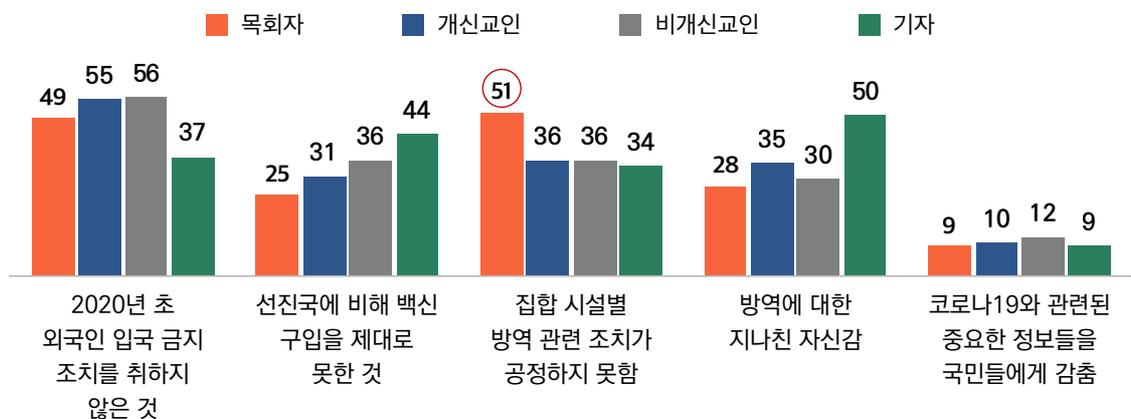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장로회신학대학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2021.04.14.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기자 102명 등 총 1,402명, 온라인/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1.06.~17)
 ** (매우+약간) 그렇다,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 수치임

● 코로나19 관련 정부/방역 당국의 문제점

- 코로나19 관련 정부/방역 당국의 문제점을 보면, 기자를 제외한 3그룹이 ‘2020년 초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높게 지적했다.
- 목회자의 경우 ‘집합 시설별 방역 관련 조치가 공정하지 못함’이라는 응답(51%)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한 점이 주목된다.
- 기자들은 방역 당국의 ‘방역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50%)을 가장 높게 지적했다.

[그림] 코로나19 관련 정부/방역당국의 문제점(상위 5위) (%)



*자료 출처 : 장로회신학대학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2021.04.14.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기자 102명 등 총 1,402명, 온라인/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1.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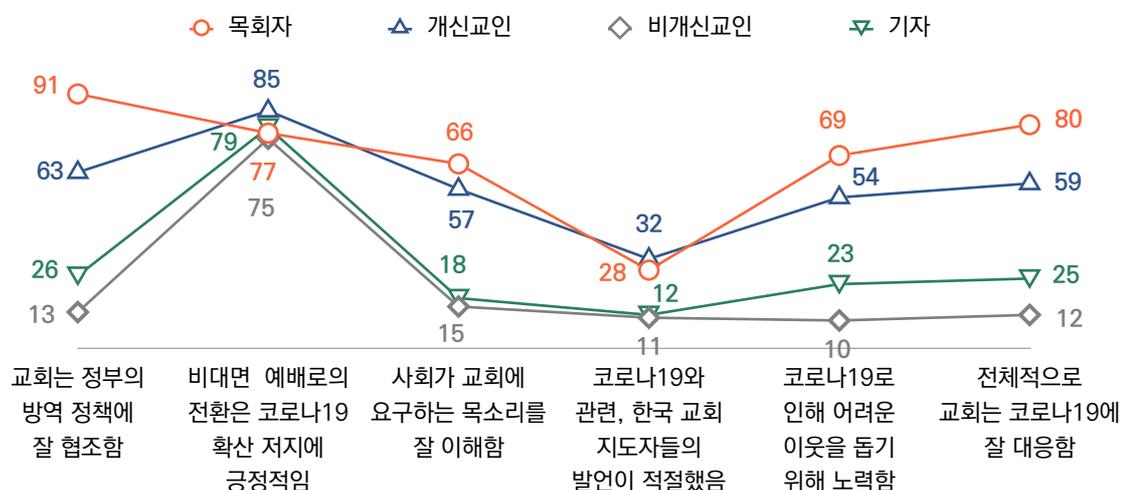
3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의 대응 평가, 목회자(80%)와 비개신교인(12%)간에 무려 6배 이상 차이를 보여!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 교회가 대응을 잘했다는 인식은 목회자가 80%로 가장 높고, 비개신교인이 12%로 가장 낮는데, 이 두 그룹 간 인식이 무려 6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와 같은 결과는 ‘교회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한다’는 인식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또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은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긍정적이다’는 인식은 4그룹 모두 70% 이상의 높은 긍정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현재의 개신교에 대한 국민인식은 개신교가 정부 방역 정책에 얼마나 잘 협조하는가가 절대적인 변수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림] 코로나19 관련 개신교 교회의 대응 평가(긍정률 : 매우+약간 그렇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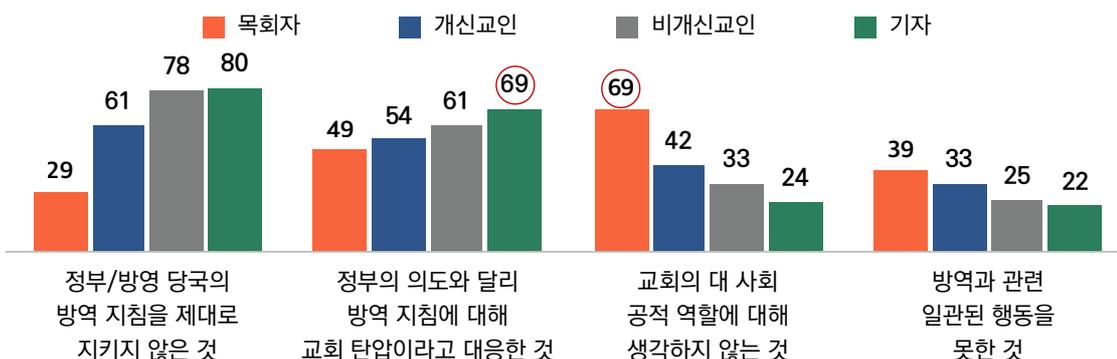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장로회신학대학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2021.04.14.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기자 102명 등 총 1,402명, 온라인/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1.06.~17)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의 문제점, 목회자, '교회의 대사회 공적 역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 69%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의 문제점으로 목회자를 제외한 3그룹은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1위로 응답한 반면, 목회자는 '교회의 대사회 공적 역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을 69%로 가장 높게 응답해, 코로나19가 목회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공적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코로나19 관련 개신교 교회의 문제점(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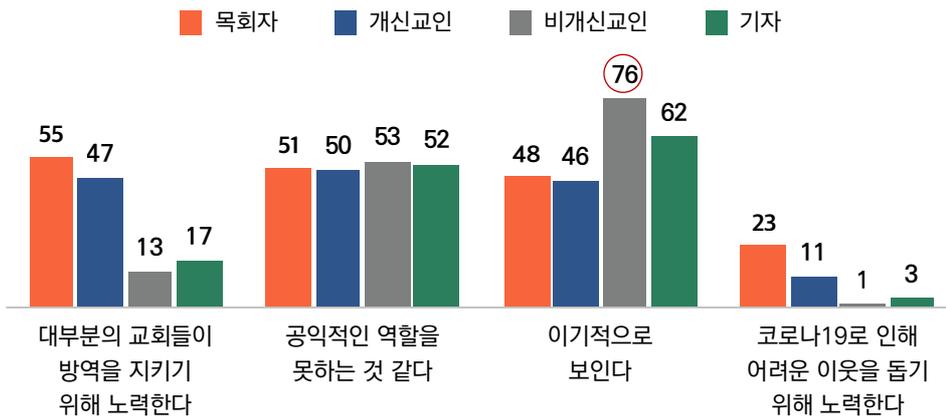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장로회신학대학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2021.04.14.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기자 102명 등 총 1,402명, 온라인/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1.06.~17)

● 언론에 비친 개신교 모습, '이기적으로 보인다'

- 언론에 비친 개신교 교회의 모습을 질문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기적으로 보인다'가 가장 높는데, 특히 비개신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공익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등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다 보니, 개신교의 장점인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묻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언론에 비친 개신교 교회의 모습(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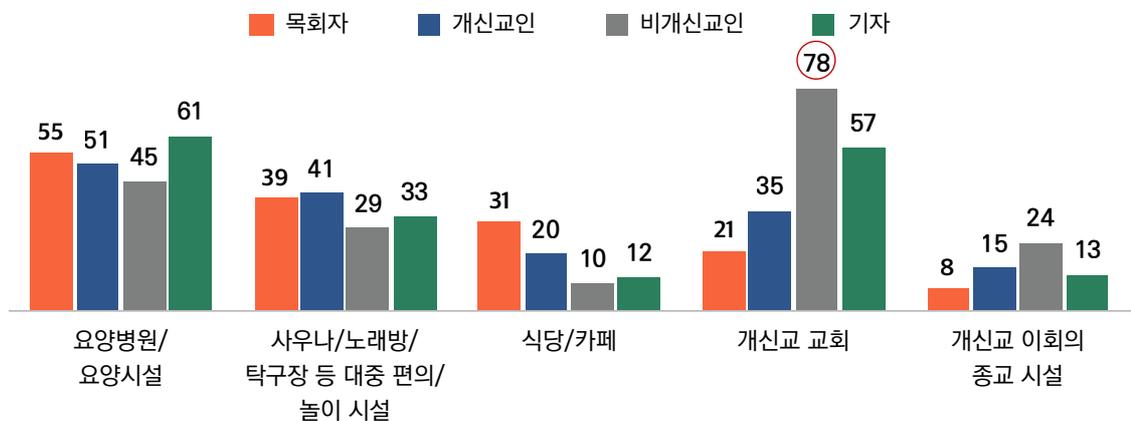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장로회신학대학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2021.04.14.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기자 102명 등 총 1,402명, 온라인/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1.06.~17)

● 코로나19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감염 경로, 목회자/개신교인/기자는 요양병원, 비개신교인은 개신교 교회

- 코로나19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감염 경로를 묻는 질문에, 비개신교인은 개신교 교회를 78%로 압도적으로 높게 지적한 반면, 다른 세 그룹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을 1위로 지적해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코로나19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감염 경로(상위 5위)

(%)



*자료 출처 : 장로회신학대학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2021.04.14.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기자 102명 등 총 1,402명, 온라인/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1.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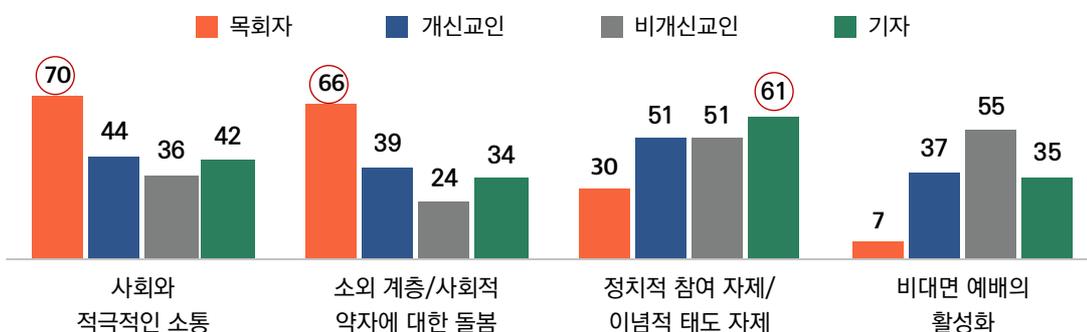
4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그룹,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회의 정치적 참여 자제를 요구!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가 관심 가져야 할 분야를 질문한 결과, 목회자는 ‘사회와 소통’과 ‘약자에 대한 돌봄’을 가장 높게 응답했다.
- 그러나 목회자 이외 다른 3그룹은 뜻밖에도 절반 이상이 ‘정치적 참여 자제/이념적 태도 자제’를 지적했다. 이는 일반인 뿐 아니라 개신교인들도 교회가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개신교가 관심 가져야 할 분야(1+2순위,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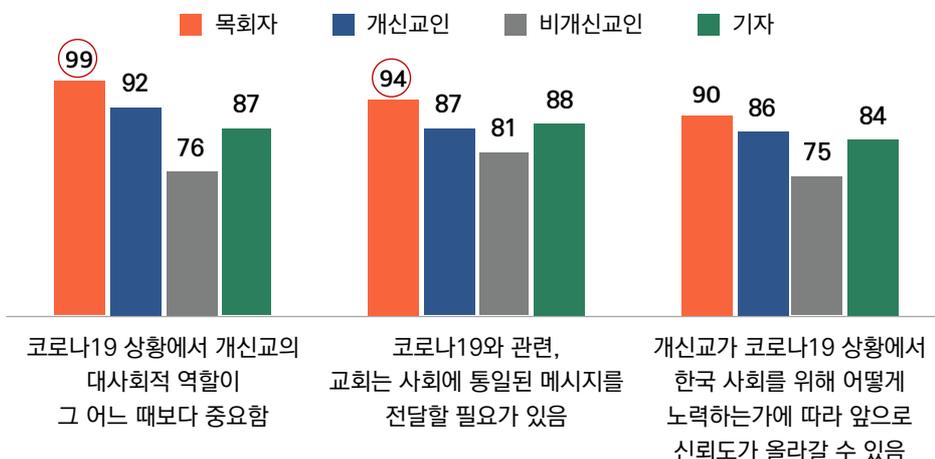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장로회신학대학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2021.04.14.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기자 102명 등 총 1,402명, 온라인/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1.06.~17)

● 응답자 대부분, ‘향후 개신교의 노력 정도에 따라 신뢰도 올라갈 수 있다!’

- 개신교에 대한 인식을 속성별로 질문하였는데, 모든 그룹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신교의 대 사회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 교회는 사회에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 개신교의 통일된 목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또한 ‘개신교가 앞으로 한국사회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의 집단에서 높은 긍정률을 보여 희망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개신교에 대한 인식(긍정률 : 매우+약간 그렇다) (%)



*자료 출처 : 장로회신학대학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2021.04.14.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기자 102명 등 총 1,402명, 온라인/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1.06.~17)



시사점

이번 [넘버즈] 92호에서는 코로나19를 둘러싸고 언론과 정부의 교회에 대한 태도를 목회자,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기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많은 부분에서 목회자와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과 기자와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목회자와 개신교인은 언론과 정부가 교회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비개신교인과 기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왜 개신교인(목회자 포함)은 비개신교인(기자 포함)보다 교회가 부당 대우 혹은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걸까? 이번 분석에서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바로 '프레임'이다. 개신교인 특히 목회자는 언론과 정부가 교회를 비판적 프레임에 갇고 보기 때문에 교회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비개신교인과 기자가 보는 언론에 나타난 교회는 '이기적'인 모습인데, 바로 '이기적 교회'가 프레임으로 작동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프레임이란 무엇일까? 프레임이란 개념은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오래된 학문적 개념인데 이것을 대중화시킨 것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이다. 그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책에서 프레임을 이야기해서 프레임을 유명하게 했다. 프레임은 쉽게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으로서 프레임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 흔히 말하는 선입견, 고정 관념도 프레임의 범주에 속한다. '교회는 이기적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교회를 보면 사소한 것도 이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작은 실수도 크게 확대해서 보고, 교회에 이기적인 요소가 없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서 꼬투리를 찾는다. 그래서 부분적인 이기적 요소가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것도 이기적인 것으로 오해받는다. '교회는 이기적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기자의 기사에 '이기적인 교회'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프레임이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꾸기 어렵다. 사람들은 자신의 프레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또 개신교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고, 교회가 성당이나 사찰보다 더 많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확률이 훨씬 높다. 게다가 언론은 속성상 '비판적'일 수 밖에 없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발생되면 거기에 주목하게 되므로 프레임이 갈수록 더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는 이기적'이라는 프레임을 깰 수 있을까? 특정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건 일부 교회의 문제이고 대다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기존 프레임이 공고한 상황에서는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레임을 깨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첫째로는 장기적 관점의 지속적 노력으로 프레임으로 해석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자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회가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야 한다. 교회가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는 세상의 언어로 세상과 공감할 필요가 있다. 김수환 추기경, 마더 테레사 수녀, 이태석 신부, 법정 스님, 법륜 스님, 이분들은 자기 종교의 색깔을 굳이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보편적 언어와 상식적 감성으로 세상과 소통한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분들은 자기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분들로 인해서 천주교와 불교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우리 개신교에도 위의 분들과 같이 세상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여 세상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교회가 자기를 희생할 때,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때 교회를 향한 프레임이 악화 혹은 깨질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단체 간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로 결론을 대신한다.

“교회에서 사회를 포용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교회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결국 교회를 배제하게 되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현재 그 위험성이 높은 상태 같다. 한국 교회가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측면에서 관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단지 전도 대상자가 아닌 실존 자체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지구 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기후 변화 현상>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지난 30년간 0.9도 올라!
2.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 합계출산율 1.1명으로 2년 연속 세계 198개국 중 꼴찌!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지구 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기후 변화 현상(기상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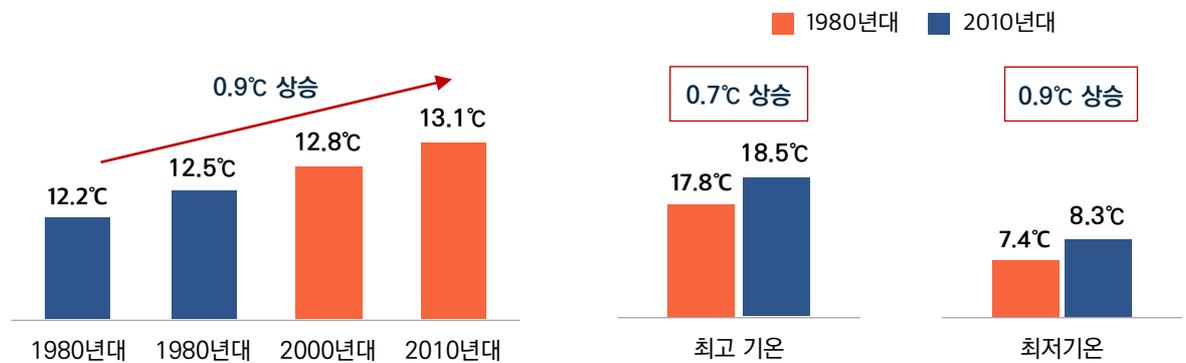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지난 30년간 0.9도 올라!

- 지난 3월 24일 기상청이 최근 30년간의 기후 변화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1980년대 12.2°C에서 2010년대 13.1°C로 지난 30년간 평균 기온이 0.9°C 상승해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 기온 역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2010년대 18.5°C로 1980년 17.8°C보다 0.7°C 상승하였고, 최저기온은 2010년대 8.3°C로 1980년대 7.4°C보다 0.9°C 상승하였다.
→ 기상청은 한반도에서 평균 1°C도 상승은 농작물 생산량 감소, 사람 사망 위험 증가, 나무 고사율 증가, 감염병 발생률 증가 등 생태계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고 발표했다.

[그림] 연평균 기온 (1980년대 이후 30년간 변화)

[그림]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변화(1980년대 vs 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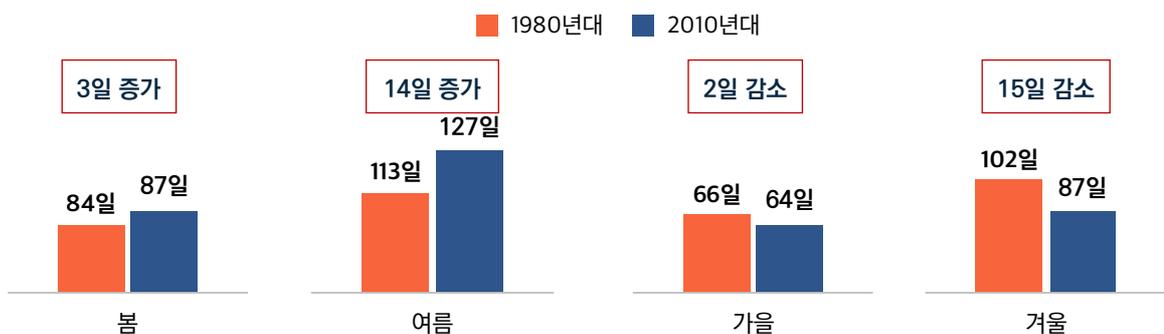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기상청, '신(新)기후 평년값이 보여준 기후 변화' 보도자료, 2021.03.25.

● 지난 30년 간 계절 길이 변화, 여름은 14일 증가, 겨울 15일 감소!

- 지난 30년간 여름은 증가, 겨울은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즉 1980년대 여름은 113일이었는데 2010년대 여름은 127일로 30년 간 14일 증가했고, 반면 겨울은 1980년대 102일이었는데, 2010년대 겨울은 87일로 무려 15일이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기후 변화로 봄/여름 길이는 늘어나고, 가을/겨울 길이는 줄어들고 있다.

[그림] 30년간 계절 길이 변화(1980년대 vs 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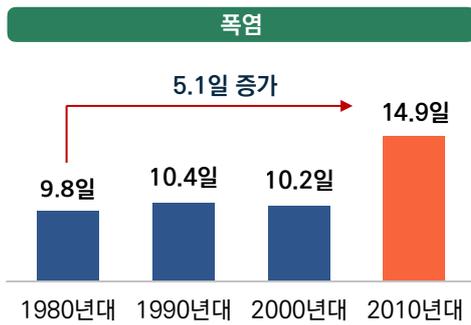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기상청, '신(新)기후 평년값이 보여준 기후 변화' 보도자료, 2021.0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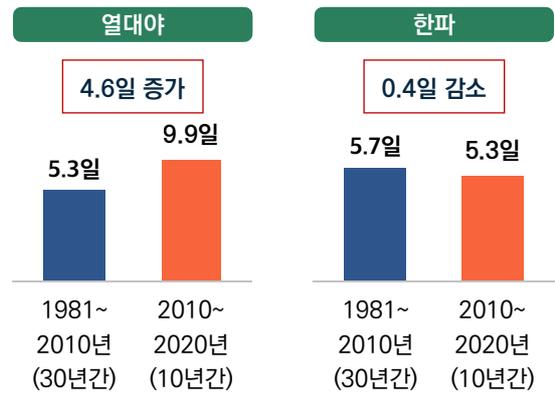
●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폭염, 열대야’ 일수 늘고 ‘한파’ 일수는 줄어들어!

-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폭염’, ‘열대야’, ‘한파’ 일수를 추적하였는데, 2010년대 폭염 일수는 14.9일로 1980년대 9.8일보다 5.1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대 폭염 일수가 크게 증가했다.
- 2010~2020년(10년간) 열대야 일수는 9.9일로 1981~2010년(30년간) 5.3일에 비해 4.6일 증가한 반면, ‘한파’ 일수는 2010~2020년(10년간) 5.3일로 1981~2010년(30년간) 5.7일에 비해 0.4일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그 이전보다 온난화가 심해져 더운 날은 늘고 한파는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림] 연 평균 폭염 일수 변화
(1980년대 ~ 2010년대)



[그림] 열대야와 한파 일수 변화
(1981~2010년 vs 2010~2020년)



*자료 출처 : 기상청, ‘신(新)기후 평년값이 보여준 기후 변화’ 보도자료, 2021.03.25.

1

2.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유엔)



한국 합계출산율, 1.1명으로 2년 연속 세계 198개국 중 꼴찌!

- 유엔인구기금(UNFPA)이 최근 ‘2021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1명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198번째로 2년 연속 세계 꼴지를 기록했다.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소년(0-14세) 비율 역시 12.3%로 일본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으며(세계 평균 25.3%).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 역시 16.6%로 세계 평균 9.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0.2%로 세계 평균 1.1%보다 크게 낮았고, 기대 수명은 ‘남성’ 80세, ‘여성’ 86세로 세계 평균(남 71세, 여 75세)보다 각각 9세와 11세가 높았다.
- 북한의 경우 인구 성장률, 유소년 비율, 합계출산율 등 주요 인구 지표가 한국보다는 높으나 세계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로 가고 있다.

Note) 이번 보고서의 인구 현황 통계표는 인구건강조사(DHS), 유엔아동기금 복수지표집합조사(MICS) 유엔 추산 자료등을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통계청)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한국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 : 0.84명, 2020년 2/4분기 기준).

[그림] 2021년 인구 현황(한국 vs 북한 vs 세계)

	한국	북한	세계
인구(명)	5,130만	2,590만	78억 7,500만
연평균 인구성장률	0.2%	0.5%	1.1%
합계출산율	1.1명	1.9명	2.4명
유소년층 (0~14세) 비율	12.3%	19.8%	25.3%
고령층 (65세 이상) 비율	16.6%	9.6%	9.6%
기대 수명 (세)	남 80, 여 86	남 69, 여 76	남 71, 여 75

*자료출처: 유엔인구기금(UNFPA), '2021년 세계 인구 현황보고서', 연합뉴스 2021.04.14. '한국 출산율 2년 연속 전세계 꼴찌... 14세 이하 비율도 최하위'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4081600072>

**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일
반
사
회

[한국의 지독한 명품 사랑...코로나에도 15조원 '평평'](#)

연합뉴스_2021.04.17.

[배고파 달걀·통조림 슬쩍... '코로나 장발장' 급증](#)

조선일보_202104.21.

['2020 한국 인터넷백서' 10대는 SNS·20대는 쇼핑·30대는 업무 위해 '로그인' 한다](#)

연합뉴스_2021.04.19.

[수년째 표심 엇갈린 이대남·이대녀... "젠더갈등 이젠 줄여야"](#)

연합뉴스_2021.04.18.

[新세대 갈등 20代 vs 40代..달라도 너무 다르다](#)

매일경제_2021.04.21.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코로나19 저소득층 더 아팠다...계층간 양극화 심화](#)

이데일리_2021.04.23.

[코로나대응 국민 여론 뒤집혔다... "잘못" 49% "잘해" 43%](#)

연합뉴스_2021.04.23.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리포트 제25호 \(2021년 4월 3주\)](#)

전국지표조사_2021.04.22.(국내 메이저급 여론조사회사 4개사 연합 조사)

기
타

[한국 '세계경제 톱10' 진입](#)

동아일보_2021.04.22.

[지구에서 생태계 온전한 곳 3%뿐...이조차 과대평가?](#)

한겨레_2021.04.18.

이슈 큐레이션

[이슈 큐레이션 어른들의 게임 이용 실태](#)

경향신문_2021.04.17.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장애인의 날(4월 20일), 장애인 관련 통계

이
슈

큐
레
이
션

1. 장애인 절반이 65세 이상 ... 장애인구도 고령화

[한국일보_2021.04.19.](#)

2. 장애인 웃음 찾아준 '탈시설'... 文정부 공약인데 제자리걸음

[한국일보_2021.04.19.](#)

3. 장애인 가구 70% “경제 하층”...소득 보장 가장 원해

[경향신문_2021.04.20.](#)

4. "공무원 아니면 자립 꿈도 못꿔"…벼랑 끝에 선 장애인 취준생

[매일경제_2021.04.16.](#)

5. 몸도, 마음도 지친다...발달장애인 가족에 더 가혹한 코로나19

[연합뉴스_2021.04.19.](#)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 (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용림,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시스코프(증액), 유성민(증액)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 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볕회